

문이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엾고 작은 생명을 사랑하는 원초적 모성과 제도화된 모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대립·추방·배척의 원리에 바탕을 둔 남성적이고 로고스적인 논리로서의 모성이다. 남성이 ‘작은 신음소리’를 잘 듣지 못하지만 여성이 늘 타인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 원초적 모성 때문이다.”

그가 ‘생명의 원리’로서의 참 모성이 문화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

이다. ‘인형의 집’을 탈출했던 나라들이 귀가한 것도 자식들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전세계의 현대 여성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시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장필화 교수는 “남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모성이란 아이를 기르며 학습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남성도 거의 어머니처럼 모성애를 가지고 아이를 보살필 수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남성 속의 모성을 끄집어 내어 부부가, 또는 제3자(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기르자는 것이다.”

조성숙 위원도 “육아와 교육은 사회적 행

위이다”라고 강조한다. “모성이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자질을 말한다. 따뜻한 애정, 영양 공급, 성장을 지켜보고 돕는 일이다.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그 일을 꼭 엄마 혼자 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일과 다름 없다.”

어머니가 신화화된 모성 본능에서 자유로워지고, 아버지가 자신의 여성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가 그것을 도울 때 ‘다 함께 키우기’라는 대규모의 문화는 시작된다 는 것이다. ■

93. 6/10 김賢淑 차장대우  
18일, 인사리대

## 첫 ‘모성’ 조각전 여는 윤석남씨

윤석남(55)의 작품은 잘 팔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딱 한점을 팔아봤다. 겨우 재료비밖에 안 되는 값으로. 그는 자기가 정말 전업 작가일까 회의한다.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으로 물감을 사서 쓰는 한 “나는 예술가요” 하고 나서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의 처지는 우리나라 여성주의 미술의 지위와 비슷하다.

그가 처음으로 여성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반(半)에서 하나로>전(86년)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썩은 보석 사이에 벌거벗고 앉은 여자, 손이 열개라도 부족한 고달픈 어머니 등이 이 때 출품되었다. 대상은 모두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다.

<반에서 하나로>에 이어 <여성과 현실>(87, 92) <우리 붓꽃을 트자>(88) 같은 공동 전시회를 통해 그는 “이 땅에서 여성주의 미술을 가장 정직하게 수행하는 작가”(미술 평론가 엄 혁)로 떠올랐다.

그는 ‘목적이 너무 앞선 그림’에 대한 일반 관객의 거부 반응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 자신도 소재주의에 빠질 위험 앞에서 늘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는 느낌이라고 한다. ‘그림 남성 미술은 뭐냐’는 질문 앞에서 도 무력하다.

그러나 “내가 여자로 태어나 살고 딸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겪은 직·간접 체험이 나의 내부에서 아우성을 친다.” 지금까지 그가 그려 온 그림이 모두 자신과 딸의 아우성이



었다면 <어머니의 눈>전(6월8~14일·금호미술관)은 침묵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생존한 그의 친정어머니는 서른 아홉에 홀로되어 7남매를 키웠다. 가난한 어머니는 집안에만 있을 수도 없었고 ‘멀리’ 나갈 수도 없었다.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 <대문 안에서 밖으로>(나무 위에 아크릴 100×139cm)는 오막살이 문간에 앉아 봉지 쌀 장수를 하는 그의 친정 어머니 모습을 회상한 것이다. 지난 82년 윤씨의 첫 개인전 주제도 어머니였다. 그때는 캔버스에 그렸다. 10여년 만에 갖는 두번째 전시회에서도 그는 어머니를 그린다. 이번에는 캔버스 대신 나무를 택했다. 꼬무락꼬무락거리고 싶은 충동이 강했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꼬무락거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도



수공예적 작업 방식은 어머니를 표현하는 데 제격이다. 윤석남씨는 여기 저기서 얻어 온 나무에 ‘최소한의 손질’을 해서 어머니를 그렸다. 위는 윤씨의 대표작 <손이 열개라도>(85년 75×105cm).

이 수공예적인 작업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나무에 ‘최소한의 손질’을 해서 표정을 집어 넣으면서 이 작업이 어머니를 표현하는 데도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 청교도적이고 지혜로운 여성이 세상과 맺어온 관계도 부럽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내 딸에게는 외할머니를 닮으라고 하지 못한다. 손해 보지 말고 살라고 한다.”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회생자로 볼 것인가는 그가 끝내 대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다.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메시지가 약해졌다는 비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성주의 미술에도 ‘모성’은 가장 버거운 주제이다. ■